

전주국제영화제, 유료 배지 사전등록 시작

4월 16일까지 게스트·인더스트리·프레스 배지·4월 4일까지 아카데미 배지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유료 배지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게스트, 인더스트리, 프레스 배지의 사전등록 기간은 4월 16일까지며, 아카데미 배지의 경우 4월 4일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이날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부정 청약 및 금품 등 수수 급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정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배지 유료화를 시행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유료 배지는 게스트, 인더스트리, 프레스, 아카데미 배지 등 총 4종으로 구성됐다.

먼저,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영화산업 관계자는 게스트 배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프로젝트 참가를 원하는 영화산업 관련 종사자는 인더스트리 배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등록비는 1인당 70,000원이며, 4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마감 후 영화제 기간 중인 5월 1~10일까지 현

장등록이 가능하며, 현장등록 시 1인당 100,000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이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매체 등 국내외 언론기관의 취재원 및 영화평론가의 경우 프레스 배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기간인 4월 16일까지 무료로 배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등록 마감 후 영화제 기간 중에 현장에서도 배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현장등록 시 1인당 50,000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영화, 영상 관련 교육기관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대학(원)생 혹은 강사는 아카데미 배지를 신청할 수 있다. 10인 이상의 단체 신청만 가능하며, 사전등록비는 1인당 40,000원이다. 아카데미 배지는 4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영화제 현장등록은 불가하다.

배지 별 혜택으로는 게스트, 인더스트리, 프레스 배지 소지자의 경우, 영화제 기간 중 배지 소지자 본인에 한해 1일 4매까지 상영작 티켓을 발급할 수 있으며, 게스트센터와 게스트

카페, 비디오 라이브러리, 웨이트라인 이용이 가능하다. 또 아카데미 배지는 현장 예매만 가능하며, 배지 소지자 본인에 한해 1일 3매까지 상영작 티켓 발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유료 배지 소지자 전원에게는 전주프로젝트 행사장 입장, 굿즈샵에서 영화제 기념품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배지 신청은 전주국제영화제 배지 홈페이지(<https://badge.jonjufest.kr>)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배지 별 신청 요건에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영화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화제 승인을 받은 배지 신청자는 등록 기간 내 개인정보 등록 및 금액 결제를 마쳐야 최종 신청이 완료된다.

유료 배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배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주국제영화제 운영팀 배지 담당(063-280-7901, badge@jonjufest.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솔바람 솔향기 불리 모아’ 초대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29일까지 양진 작가 유화 작품 만날 수 있어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무주군 안성면 소재) 칠연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양진 작가 초대전 ‘솔바람 솔향기 불리 모아’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양진 작가의 작품 ‘비상 날아 오르다’ 등 소나무를 소재로 한 유화 20여 점과 만날 수 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최일 관장은 “소나무 작가로 유명한 양진 작가의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소나무 숲을 연상케 하는 현장에 직접 오셔서 작품에서 풍기는 솔향을 직접 만끽해 보시길”고 전했다.

양진 작가는 현재 사)한국미술협회와 한국예술협회 이사를 비롯해 한국예술협회

전북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아트페어를 비롯한 단체전과 기획전, 그리고 개인전 등에 참가해 화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위원회 서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상을 받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주문화재단-세이브더칠드런-완산청소년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4일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동관), 완산청소년센터(센터장 김법안) 등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인 꿈꾸는 예술터 전국 1호를 운영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사업, 학교 연계 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사업과 함께 꿈의 댄스팀, 예술로딩크, 창의예술교육 랩 등 국가 정책사업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최초로 아동 구호 활동을 시작한 NGO(비정부기구)로, 서부지역본부는 호남, 충청, 제주권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전주문화재단은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안전보호정책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및 응급처치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완산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자원봉사활동,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문화재단과 완산청소년센터는 지역 내 문화예술 지원과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으로써 청소년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모두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 아동권리 증진, 봉사활동,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문화재단 임승한 사무국장은 “재단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 조직들과 협력과 상생은 필수적”이라며 “아동·청소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더 효율성 있는 예술교육 사업들을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모루공예 체험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3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모루공예 ‘모루인형 킴 만들기’를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15~20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학생 이상 청소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회차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루공예란 철사에 여러 가지 색의 털이 감긴 미술용 교구인 ‘모루’를 이용해 다양한 인테리 소품이나 꽃 모형, 인형 등을 만드는 공예를 말한다.



이번 문화행사는 모루를 이용한 킴 인형을 만들 예정인데, 털이 붙어있는 모루 청사를 반듯하게 펴주어 기초 작업을 한 후 손으로 꼬아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고 액세서리를 사용해 꾸며주는 식의 작업이 이뤄진다.

특히 단순히 디지털을 즐기는 공간을 넘어

이경운(대표이사 이경운)은 14일 완산여자고등학교(교장 김원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완산여고는 도내 유일 관광 관련 학과(관광서비스과)가 개설된 특성화고등학교로, 지난해 전북글로벌특성화고등학교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디지털콘텐츠과를 신설하고, 문화관광콘텐츠를 테마로 운영된다. 이날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육성 선도모형을 공동 발굴·운영한다. 특히, 재단 내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전문 인력양성 아카데미를 비롯한 관광 분야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완산여고, 협약 체결

이경운(대표이사 이경운)은 14일 완산여자고등학교(교장 김원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완산여고는 도내 유일 관광 관련 학과(관광서비스과)가 개설된 특성화고등학교로, 지난해 전북글로벌특성화고등학교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디지털콘텐츠과를 신설하고, 문화관광콘텐츠를 테마로 운영된다.

이날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육성 선도모형을 공동 발굴·운영한다. 특히, 재단 내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전문 인력양성 아카데미를 비롯한 관광 분야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

기로 했다.

또한 학생 현장실습과 관광 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및 채용 박람회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원기 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도내 관광산업 분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완산여고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관광 인재를 조기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고자 한다”며, “지역 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인구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 한입에 먹다! 팝업스토어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주 맛을 오롯이 담아낸 디지털 5종을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오는 16일 전주한옥마을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에서 진행한다

‘전주, 한입에 먹다!’를 주제로 한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주의 대표 디지털 먹거리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진행된 전주한입 공모전에 선정 디지털 5종을 공식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전당에 따르면 팝업스토어에서 선보이는 5종의 디지털은 △ MZ쿠키세트(달과 기와) △ 켈리살기(향남시루) △ 전주 쌀꾸러미(워커비) △ 한미모 샌드위치(데이브제과점) △ 감말랭이(양평(PNB)) 등으로 각 업체의 대표 디지털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디지털을 즐기는 공간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전주의 문화를 맛보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도영 원장은 “관광객이 많은 주말 전주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전주한입 디지털 5종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이라며 “전주의 먹거리 관광 기념품이 점차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